"거사회 활로는 사회봉사"

수원포교당 토론회서 제기

"친목 · 교리공부 한계 벗어나 환경운동 등 대승사상 실천"

여성신도에 비해 소수인 거사회의 활동이 단순한 친목 · 교리공부에서 한걸음 나아가 자원봉사 환경운동 등 대사회적인 측면에까지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불교신자의 대다수를 이루는 여성신도들 틈바구니에서 간신히 맥을 이어오는 거사들의 활동은 어떠해야 할지 역할과 방향을 모색해 보는 토론회가 마련돼 주목을 끌었다.

수원포교당 거사회가 창립 13주년을 맞아 개최한 '수원포교당 거사회 창립 13주년 · 선남자 창간 1주년 기념 거사회발전토론회'에서 권중서 포교부장(수원포교당 거사회)은 "수원포교당 거사회는 13년 간의 활동 경험을 토대로 자체적인 교리공부와 신행에만 활동을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대사회적인 봉사를 통해 부처님 말씀을 널리 알리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행활동 뿐만 아니라 불교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대사회적인 측면으로 눈을 돌림으로써 거사불자들의 운신 폭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하게 친목을 도모하고 교리 공부를 해오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자원봉사와 환경운동 등도 실행대상으로 다가왔다. 여성불자들에 비해 거사불자들은 신행조직 및 활동, 자원봉사 등에 취약한 면모를 보여왔다. 그러나 수원포교당 거사회와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등 창립한지 10년 이상되는 거사회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거사회의 활동이 대사회적인 봉사 등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매주 이뤄지는 법회의 실용성 문제도 제기됐다. 수원포교당 거사회의 둘째 넷째주 경전강좌의 경우 2~3년간 지속돼 지루함을 느껴, 현행 강좌의 진행속도를 높여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하는 등 성취감을 주어야 한다는 것. 이같은 문제점은 수원포교당 거사회만 가진 문제는 아니다. 유홍근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총무는 "난해한 교리강좌보다는 불교적인 사회봉사활동 등과 같은 좀더 생활불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좀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법회가 꾸려져야 거사회의 재원조달방법 고찰, 거사회원 모집 및 관리 방안의 개혁 등도 뒤따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거사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법회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신행법요집이다. 기존의 법요집들이 사찰마다 다른 형식을 취하고 거사회의 경우 초청법사스님에 따라 달라지는 등 혼란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최소한 한 모임에서는 한가지 방식을 정착시켜 법회운영의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선각스님(수원포교당 도감)은 자기성찰을 통한 자각과 그에 따른 증득된 과정, 실천을 통한 신행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불교의 미래는 어두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수원포교당 거사회 토론회에서 진철회 회장(수원포교당거사회)은 "거사불자들의 참된 신행심 고취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논산훈련소 훈련장병 1천5백명 수계법회

불교 어머니회 주최

불교어머니회(회장 김반야성)는 2월27일 논산훈련소 법당에서 장병 3천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육군훈련소 훈련장병 수계대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에서는 자광스님(용인선원)을 계사로 장병 1천5백명이 오계 수지를 다짐하고 수계를 받았다. 계첩은 포켓용으로 제작된 수계증으로 지급되는데 수계 후 일주일 안에 훈련소로 보내고 퇴소한 장병들은 집으로 보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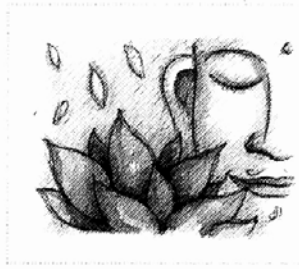
불교어머니회는 앞으로 군장병 포교를 활성화해 수계를 받는 불자 확대에 노력하고 내실있는 포교활동을 위해 활동할 계획이다. 군포교가 대사회적으로는 가정에서의 종교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것이란게 불교어머니회의 활동 목표이다. 017-205-9292

일터에서 쓰는 마음의 편지

조 양 자
〈예담 꽃꽂이중앙회장〉

부처님전에 꽃을 올리기 전 먼저 삼배를 올린다. 이 꽃으로 불전을 장엄함으로써 부처님의 성전이 더욱 밝고 경건하며 성스러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꽃꽂이가 되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또한 이 꽃으로 장엄됨으로써 부처님께 올리는 스님과 불자들의 기도가 더욱 원만하고 환희심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들어있다.

불교와 꽃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룸비니에서 꽃에 둘러싸여 탄생하셨고 쿠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드실 때는 주위를 둘러싸고 있던 사라쌍수에서 때아닌 꽃이 피어 만개했다가 후두둑 떨어져 부처님을 덮었다고 한다. 설법하실 때마다 하늘에서는 꽃비(花雨)가 내렸다. '염화미소' 라는 말을 대할 때마다 수많은 대중들이 모여있는 영산회상에서 부처님께서 한송이 연꽃을 들어보이는 모습, 다들 어리둥절해 하는데 마하가섭 존자만이 홀로 미소를 짓는 장면이 마치 영화처럼 떠오른다.



부처님께 올리는 여섯가지 공양물중 으뜸이 꽃공양이다. 불교전성기에 생화를 따라 곱고 아름다운 꽃으로 꽃공양을 한다면 꽃는 사람은 꽃으면서 즐겁고, 보는 사람은 보면서 기쁨과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으니 꽃공양이 얼마나 큰 공덕인가.

불전공화는 상단(영산회상단)은 상단에 맞게 중후하고 화려하게, 신중단은 중단대로의 크기와 모양을 갖추고, 하단(영가단)은 그윽하게 마음이 가 닿는 모습 그대로 단아하고 깨끗하게 가려서 꽂는 것이 여법한 꽃공양이다. 이와같이 불전공화는 이론과 실기가 여법하게 겸할 수 있어야만 이 완전하게 된다. 꽃은 화려하고 많이 꽂아야만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때와 장소에 맞게 꽂는다면 보다 더 절제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장소에 따라서는 한 두 송이만 꽂아도 아름다울 수 있다. 불자들이 배우고자 하는 적극성과 함께 발전하고자 하는 마음가짐만 있다면 내 능력이 닿는 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싶다.

나에게서 꽃꽂이를 배운 사람들이 각각 절에 가 법당을 아름답게 장엄해 놓으면 아름답게 꽃공양 올려진 부처님전에 참배온 사람들이 더욱 부처님의 법력과 가피를 느껴 참회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이보다 더 큰 보람은 없을 것이다.

아름다움의 대명사 꽃, 꽃을 보고 좋아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아름답게 하고 꽃처럼 향기를 지닌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다. 아무리 겉모양을 화려하고 비싼 것으로 치장해도 내면이 아름답지 못하면 그 본색이 곧 드러난다. 만날수록 빛나는 마음다움과 은은한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부처님의 길을 따르는 불자들이 앞장서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 사회를 밝고 향기롭게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꽃공양 통해 마음의 평화를…"

공양하던 것이 꽃꽂이의 근원이 됐다고 한다.

꽃꽂이회를 이끌면서 부처님전에 꽃공양을 올리고 싶어도 그 방법을 찾지 못하는 불자들을 도와주고, 크고 작은 모든 사찰의 법당에 꽃공양이 여법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불전공화(佛前供花)할 장학생을 모집하여 무료로 가르친 것이 이제 4기를 맞는다. 일주일에 하루를 할애하여 내가 보시할 수 있는 방법인 꽃예술을, 원력이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회향하고픈 마음에서 꽃꽂이를 가르치기에 그들이 잘 배워서 여법하게 불전을 장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소극적인 방법인 나만의 기도에서 보다 나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외면 내지는 방관하고 있지나 않은지 불자들은 반성해 볼 일이다. 나 하나의 힘보다는 두 사람이, 두사람 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의 힘이 같이 할 수 있다면 우리들의 법당은 언제나 꽃으로 환하게 꾸며질 수 있고, 그 꽃을 보는 사람들의 신심을 더욱 고양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절기 따라 재일(탄생, 성도, 열반, 우란분절 등)

글꼴 평이하게…크기 자유롭게

홈페이지 만들기 ⑤

작업한 문서 'test1'을 불러온다. '환영' 글자의 크기를 바꿔보자. 우선 환영을 블록으로 설정한다.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드래그하면 블록이 설정된다. 서식도구막대에 있는 '글꼴 바꾸기' 목록 버튼을 눌러 원하는 글꼴을 선택한다.〈그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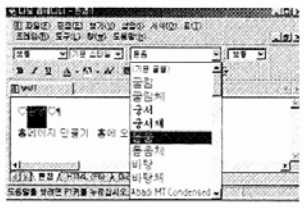
'환영'의 글꼴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아래 문단도 블록 설정한 후 글꼴을 바꾼다.

예쁜 글꼴로 꾸미고 싶다면 윈도우 제어판의 글꼴에서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다. 글꼴 파일은 인터넷이나 PC통신에서 구하면 된다.

이번엔 글자크기를 조절해 보자. '환영'을 블록설정하고 서식도구막대에 있는 글자크기바꾸기 목록 버튼을 눌러 '6(24pt)'를 선택한다. 글자가 커진 것을 알 수 있다.〈그림2〉

글자크기를 표시하는 PT는 포인트(point)의 약자이다. 24PT는 글자크기가 24포인트라는 말이다.

다음 문단을 블록 설정한 후 '서식' 메뉴의 '글자' 안의 '크기 늘리기'를 누른다. 블록 안에 글꼴이 한단계 커져있음을 알 수 있다. 똑같은 방법으로 '크기 줄이기'를 누르면 글꼴이 한단계 작아져 있다. 그러나 웹 상에서 특이한 글꼴은 깨지기 쉬우니 평이한 글꼴을 선택하는 것이 홈페이지를 더 깔끔하게 꾸밀 수 있는 비결이다.



◇그림〈1〉

◇그림〈2〉

수원지역 거사모임 '마하연' 창립

수원지역 내 거사들의 모임인 '마하연'이 1일 경기불교회관(관장 김태제)에서 창립됐다.〈사진〉

30여명의 회원이 모인 가운데 창립식을 가진 마하연은 앞으로 4백여명에 달하는 수원을 중심으로한 경기도 지역 거사들을 회원으로 끌어들여 신행활동을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경기불교회관 거사회 마하연(준비위원장 유원근)은 신행과 불교혁신 사회운동을 겸비한 단체로 활동할 계획이다. 빠른 시일 내에 총회를 개최하고 회장단도 결정지을 예정이다. 마하연은 창립 전부터 51사단 군법당 지원을 하는등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유원근 준비위원장은 "불교계에는 조로현상이 심해져서 청년회에서 활동하던 거사들이 30대 초반만 넘기면 활동할 곳이 없었다"며 "이런 거사들이 모이면 불교계의 커다란 힘이 될 것같아 모임을 만들었다"고 창립 취지를 밝혔다. (0331)225-8471 강지연 기자

클릭! 새 홈 페이지

■법화경 수행 교육원-진제암(http://saddharma.com.ne.kr)-법화경 수행안내 및 학인 모집안내, 법화삼부경 교양강좌

■불교미술전시관(http://buddha.co.kr)-불교미술전시관, 30년 전통 불사의 전당. 1978년 4월 개관, 불교인 장애자 기술 교육원 설립, 개관 이래 주최, 주관한 불상 및 공사 다수

■김대규와 임재남의 홈(http://kimandlim.pe.kr)-청소년들의 우리문화의 이해, 특히 불교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국사학습을 도우며 서로 교감하는 장.

■강태용의 Buddhism Academy(http://www.educasting.co.kr/db/default.htm)-동국대 불교학과 휴학생인 김태용의 홈페이지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체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이버 불교대학.

■자비의 맘으로(http://cafe.daum.net/ybh5972)-2월13일 개설. 용인 불교 학생회 홈페이지. 학생회에 대해 재밌는 이야기나 관련 자료를 받고 있다.

홈페이지를 개설한 불자님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02)722-4162 jygang@buddhapia.com

心출가 체험정진법회

출가란 중생의 번뇌망상을 끊음이요, 깨달음을 향한 출발이며, 인생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재가불자의 출가는 『心출가』이며, 이는 자신의 내면세계에 대한 혁명이어야 합니다.
『心출가』 동참자는 새벽예불 참석, 오계 지키기, 오후 불식, 발우공양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기 간: 출가재일(음력 2/8)에서 열반재일(음력 2/15)까지 3월 13일(월) ~ 3월 20일(월) ※ 사시에 입재
◆지도법사: 부주지(동일)스님
◆오전반(새벽, 사시정진에 참여), 오후반(새벽, 저녁정진에 참여)
◆동 참 금: 7만원(교재 및 성지순례비 포함)
◆회향일(열반재일)에 봉암사로 성지순례를 갑니다.

정진시간표

새벽의 정진
05:00~05:15 새벽예불
05:15~05:45 참선
05:45~06:00 108참회

사시정진
10:00~11:00 『육조단경』강의
11:00~11:15 108참회
11:15~11:50 참선
12:00~12:30 발우공양

저녁정진
08:00~09:00 『육조단경』강의
09:00~09:05 108참회
09:20~09:50 참선
09:50~10:00 자자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정사
(광명시 하안사거리 삼전빌딩 8층)
◐문의 : 893-2700-1
◐http://kkjS.withyou.net
※ 종무소에 근무할 신심있는 분 (애기보살님)을 찾습니다.

신비의 기도처

육지속의 섬 국내유일의 영험도량
금수산 천진사
삼천배 정진 기도 동참안내

일 시
· 매월 2째주 토요일 저녁 8시 - 새벽 5시 (철야정진)

위 치
· 축북 단양 금수산 (단양팔경 구단봉 맞은편)

교 통 편
· 서울(동서울) ~ 단양 매시 고속버스 정시운행
· 단양 - 천진사 셔틀버스 운행
※ 참가하실 분은 전화 연락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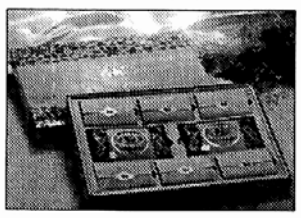
문 의 0444) 423-2083 011) 786-9379

※ 4째주 토요일 9시 - 12까지 대다라니 주력기도 합니다.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 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33세된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진통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 · 교정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착용이라는 것은 생각않고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는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패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결과는 놀랍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개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장 영 희)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 ·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